

# 애널리스트 재량근무제… 찬성 vs 반대 ‘논란 가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책정〉

## 노조

취지 어긋나고 고용 확대 도움 안돼

## 증권사

선택적 근로제·PC 오프제 등 활용

정부가 근무시간보다 근무성과가 중요한 증권사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등에 대해 52시간 근무제의 예외규정인 ‘재량근로제’를 허용하기 위해 최근 행정예고를 하자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직무에 대해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주 52시간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전 산업군에서 도입됐지만 금융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진 후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증권사에서 시행됐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증권사는 22개사이다.

그동안 증권업계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52시간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재량근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달 20일 전국 기관장 회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7월 31일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시민들이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에서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에 대해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현행 고시에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로 정한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히, 감정평가’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노조 “근로시간 단축 취지 어긋나” 반대

노동부의 행정예고 이후 증권사 노동조합(노조)의 상급단체이자 14개 증권

사가 소속돼 있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지난 4일 ‘반대’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조 측은 또 8일 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의견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고 고용 확대에도 도움이 안되며, 증권사 중 노조가 없는 곳은 재량근로가 사측 의사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은 유연근로제나 자율(시차) 출퇴근제 활용을 통해 이 업종에 대한 노동시간 조절이 충분히 가

능하다는 설명이다. 사무금융노조는 또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 주체가 ‘국가’이며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고, 위임이나 위촉받아 조언이나 대행을 해주는 데 반해, 금융투자분석사와 투자자산운용사는 ‘협회’라는 민간업체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자격증을 취득해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애널리스트, 재량근로제 ‘환영’

증권업계와 애널리스트는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재량껏 하는 재량근로제를 환영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탐방과 회의가 많고 해외 출장도 잦아 보고서 작성 등을 하려면 저녁 늦게까지 일하거나 새벽, 주말 근무도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높은 업무 강도를 보상하기 위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데 근무시간 제한은 오히려 근무의 질을 떨어뜨려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증권사들은 52시간 근무제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거나 퇴근 시간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오프제’, 퇴근을 알려주는 PC 팝업창 공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도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 1주일에 40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인력이 많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52시간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52시간제 시행 후 여의도 카페에서 개인 태블릿 PC로 업무를 보는 증권 맨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남은 업무 때문에 결국 퇴근 후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KTB투자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정부 정책에 맞춰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52시간제에서 애널리스트를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애널리스트 등의 주당 업무시간은 90~100시간이 넘는데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적용해도 주당 최대 64시간만 근로할 수 있다”며 “시장경쟁 상황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이번주 전국 7곳 총 2101가구 청약

### 분양캘린더

서울·경기·부산 등 청약접수 시작  
주목받은 광주·세종 견본주택 오픈

무더위가 이어질 7월 둘째주에도 전국에서 20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7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 이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2101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는 16곳, 계약은 15곳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전국 10곳에서 개관될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서울, 경기, 부산 등에 이뤄진다.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등 상반기 주택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광주, 세종에서 견본주택의 오픈이 예정돼 있다.

롯데건설은 오는 11일 경기도 이천 안흥동 266-2 일원에 공급되는 ‘이천



‘춘천 우두지구 EG the 1’ 조감도./홈페이지 캡처

롯데캐슬 페라즈 스카이’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규모다. 아파트 299가구, 오피스텔 180실 총 479세대다.

라인건설은 같은 날 강원 춘천시 우두택지개발지구 B3·4블록에 공급되는 ‘춘천 우두지구 EG the 1’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1층~지상 26층, 16개동, 총 131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67㎡~84㎡ 총 91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 전체 면적 가운데 40.19%를 조경 면적으로 확보해 테마공원형 주거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삼호는 오는 12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225-1번지 일원에서 응암4구역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e편한세상 백련산’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8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59~84㎡ 총 358가구 가운데 1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응암역·새절역을 이용할 수 있다.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한국토지주택공사·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은 같은 날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L3, M5블록에 공급되는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견본주택을 개관할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99㎡, 총 817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내 상가 8실도 동시분양한다. 특히 4·2 생활권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세종시는 전국 청약이 가능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는 점에서 세종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 국내주식형펀드 하락… “日 수출 제재 영향”

### 주간펀드동향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주식형펀드도 홀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7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6월28일~7월4일)간 전주 대비 1.20% 하락한 2108.73포인트로 마감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수출 규제와 미국 상무부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철강제

품에 관해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2.55% 상승한 2213.35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는 전주 대비 1.12% 상승한 1059.63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1.18% 하락했다. 902억원의 자금이 유입됐지만 주가 하락 여파로 전체 순자산은 전주보다 591억원 줄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2.25% 상승했다. 모든 지역 펀드가 상승한 가운데 베트남(3.24%), 북미(2.97%), 일본(2.92%)의 펀드가 우수한 수익률을 거뒀다. 전체 순자산은 5820억원 늘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 펀드는 액티브주식형의 펀드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종류C’(1.65%)가 수위를 차지했다. 해외주식형에서는 북미주식형인 ‘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C-P’(5.02%)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가파른 성장 속 지나친 저평가

### 株라큘라의 종목

#### 인터파크

거래총액 매년 10% 이상씩 늘어

“상장 이후 지속된 주가하락으로 인터파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 수준에 근접했다. 국내 항공권과 공연티켓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올 1분기 텐어라운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저평가로 판단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7일 인터파크의 재평가 시기 가 임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인터파크의 주요 성장 지표인 거래총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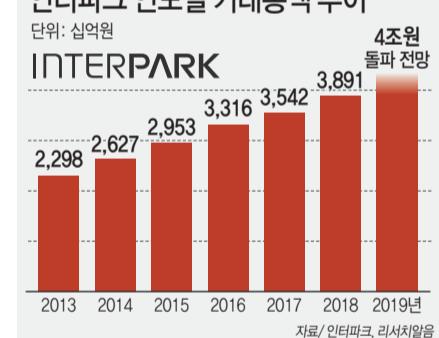
최 연구원은 “인터파크의 거래총액은 매년 10% 이상씩 늘고 있다”며 “2016년 처음 3조원을 넘어선 이후 가파르게 성장해 올해는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투어 사업 부문 역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성장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 연구원은 고수의 사업인 호텔숙박권 중개 사업의 매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해 1분기 호텔숙박권 중개 사업을 포함하는 비(非)항공권 카테고리의 매출비중은 32%로 2011년 17%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터파크는 올해 안에 홈페이지 안에서 항공, 숙박 뿐 아니라 차량 렌탈, 액티비티 이용권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런칭할 계획이어서 큰 호응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로 진출한 글로벌 OTA 업체들은 아직 고객서비스 센터 등 CS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

### 인터파크 연도별 거래총액 추이



으로 파악되는 만큼 인터파크의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이란 평가다.

투어 부문과 더불어 또 다른 중장기 성장동력은 ‘ENT(Entertainment & Ticket)’ 분야다.

인터파크는 국내 공연티켓 판매 시장에서 75%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일 뿐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뮤지컬을 직접 제작하고, 자체 보유한 공연장을 대관하는 분야까지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인터파크의 공연티켓 거래총액 가운데 15%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티켓과 투어를 결합한 상품 출시는 향후 실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예상실적은 매출액 4970억원, 영업이익 141억원이다. 매출은 전년보다 6% 줄겠지만 영업이익은 219.1%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외형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1분기부터 텐어라운드가 진행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인터파크에 대해 긍정적인 주가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86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보다 51.4% 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엄지 기자